

<2021년 3월 3일 수요말씀>

게으르지 말고 성령과 주와 같이 부지런히 행하라

본 문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말씀 시작>

1. 모르면 게으른 자다.
2. 안 하면 게으른 자다.
3.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말씀 하셨다. 고로 하나님은 했냐, 안 했냐 두 가지로 물으신다.
4. 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안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본다.
5.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모른다. 행해봐야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안다.

6. <부지런한 자>는 ‘시간’이 풍부하다.
7. 축소해서 하루를 보자. 부지런한 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행한다. 가령 낮에 12시간을 행하는 자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행한다면 3시간을 더 뛰는 것이다. 3시간만 여유가 있어도 프로그램 큰 것을 하나 더 할 수 있고, 작은 것은 두 개도 더 할 수 있다.
8. 오늘 선생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뛰니,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전에 나무 두 주를 사놓은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자들이 날 보고 가지를 풍부하게 많이 남겨주었다. 만약 내가 가지 앓았다면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다 잘라버려서 풍부한 가지를 갖고 올 수 없었다.
- 새벽에 늦게 일어났다면 눈이 잔뜩 쌓인 데다가 떨어져 갈 수가 없었는데, 일찍 일어나니까 시간이 풍부해서 상황이 뒤바뀌고 프로그램이 뒤바뀌고, 결과적으로 가지도 풍부하게 얻게 되었다. 부지런하니까 경영이 풍부한 세계로 바뀌었다. 오늘 하루로 축소시켜 보았으니, 전체가 이와 같이 하면 된다.
9. 부지런해야 어마어마한 세계를 손댈 수 있다.
10. 최고 어마어마한 세계는 황금천국이다. 고로 부지런한 자가 황금천국을 침노하고 만든다.
11. 역사적으로 구약보다 신약 때 부지런히 뛰었기에 4000년의 절반의 시간인 2000년 만에 역사를 해온 것이다.

12. 부지런하니 상황이 바뀌고 다른 길로 손을 대신다.
13. 오늘 새벽에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한 자야, 게으른 자 좀 같이 데리고 다녀라.” 했다. 섭리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고로 지금 데리고 다니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14. 떠밀어주는 존재자는 감동의 신, 성령님이시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도, 성령이 떠밀어주시지 않으면 못한다.
15. 혼자는 안 된다. 잡아당기고 떠밀어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
16. 신앙도 깨우쳐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말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깨우쳐주고 말해주어서 알면 한다.
17. 부지런한 자는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끝까지 해주기다.
18. 성령님도 무조건 하라고 안하고 떠밀어주시고, 잡아당겨주시고, 감동주시고, 삶아주신다. 성령님이 이와 같은 일을 안 하시면 우리는 재미가 없어서 못하고, 좋아서 하지 못한다.
19. 스스로 하라고 해도 자기가 할 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 한 분이라도 개입하지 않으면 뜻이 아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 버린다.
20. 풍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궁색하게 궁핍함으로 섬

기면 안 된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 한 번에 잘하라. 매일 잘하라.

21. 시간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하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성공률이 높다.

22. 영계를 보면 부지런한 영들은 옷도 깔끔하게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의가 모자라서 좋고 빛나는 옷을 못 입는다.

23. 부지런한 사람들은 황금천국을 차지해서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낙을 누리고 살지만, 시대를 좇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구시대에서 속해있다. 이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24. 부지런히 함으로 하나님이 교회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다.

25. 섭리인들은 주를 따라 새 시대 새 말씀을 먼저 듣고 시대를 좇아온 자들이니 부지런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섭리에 와서 게을러서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되겠느냐.

26.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라야 최고 부지런한 것이다.

27. (하나님) 나 여호와와는 하루를 갖고 말한다.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리라. 너희 선생이 내 마이크가 되어서 말해준다. 나 여호와와는 새벽에 강림한다. 새벽에 좌정한다. 너희는 성서를 깨

달아라. 새벽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자들은 축복을 안 준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영원한 축복도 안 준다. 새벽부터 하라.

28.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다. 주가 온 인류의 운명을 좌우시키는 기도를 한 것도, 이 시대 귀한 말씀을 준 것도 새벽이었다.

29. 부지런한 자가 자기 남편도, 부인도, 자녀도 잘 살피고 거두며 할 일을 다 한다.

30.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부지런히 할 것을 다 해야 한다.

31. 사랑에 부지런하라. 하나님 사랑, 성령 사랑, 성자 사랑, 주 사랑에 부지런해야 된다. 사랑이 상실되면 신부 자격도 상실된다.

32. 새벽을 깨우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 성령께 깨워달라고 간구하라. 습관이 되어버리면 쉽다.

33. 게으른 자는 시간을 게으른 데에 다 써버리니 조금할 수밖에 없다. 조금하면 일을 저지르게 되고 풍부하게 할 수도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 한다. 고로 궁핍함에 이르고 가난하게 된다.

34. 섭리사는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풍부하게 한 것이다. 월명동을 보면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풍부하게 했다. 시간이 조금했다면 휴거될 때까지 성전을 만들 수 없었다.

35. 축구할 때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할 만하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남았으면, 기술이 있어도 이미 기울어져서 안 된다.
36. 부지런해서 시간을 많이 얻어야 반드시 승리한다.
37. 부지런해야 새로움으로 뒤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38. 부지런히 행해야 신앙도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삶도 풍부하게 이루어진다.
39.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지혜다. 아는 것이 지식이다. 여호와께는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다. 가르쳐주었으니 뭐든지 하라.
40. 게으르면 꿈에 비가 줄줄 새고 바닥이 질퍽질퍽한 것으로 보여 준다.
41. 생명 관리도 부지런히 해야 한다.
42. 전도 안 하는 사람도 게으른 자다. 열심히 전도해서 관리도 하고, 부지런히 외치고, 부지런히 뛰고 달려라.
43. 부지런해야 얻을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다스린다.
44. 부지런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라.